

# ‘예술영화의 미학’ 광주극장 선택은



오시마 나기사 작 '전장의 크리스마스' 박수남·박마의 작 '되살아나는 목소리' 김태양 작 '미망'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부터 위안부 문제를 조망한 다큐, 41년 만에 리마스터링으로 돌아오는 고전까지.. 예술영화의 미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11월 3~4주차 광주극장 라인업을 소개한다.

### ◇파고들고 기록하지 않으면 소실되는 작고 귀한 목소리

원폭 피해자, 강제노역, 위안부 문제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13일 관객들을 찾아온다. 감독에 재일조선인 2세 다큐멘터리스트인 박수남·박마의.

영화는 박수남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10만 피트, 50시간 분량의 16mm 필름을 모아 잊혀진 역사를 되살려 본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마주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회상하며, 인간성을 상실했던 식민지 시기 일제의 초상을 재현한다.

2023 서울독립영화제 박채은 집행위원은 작품에 대해 "사라지려는 역사를 기록한, 지치지 않는 한 여정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라는 코멘트를, 김예슬비영화평론가는 "근현대사의 심연인 동시에 박수남이라는 기록자의 여정"이라는 평을 남긴 바 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뉴비전상, 무주관객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각각 독립장군상과 비프메세나상을 받았다.

### ◇잊지 못할 광화로 로맨스

20일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 '미망'은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비컨힐 크리에이티브상, 우디네 극동

### 11월 3~4주차 라인업 소개 위안부 다큐·로맨스·고전 등 다양한 시선 통해 가치 전달 내일 재일조선인 다큐 상영

영화제 퍼스트 타임 디렉터로 선정되면서 주목받은 작품이다.

주인공인 남자(하성국 분)는 서울 을지로에 그림을 배우러 가다 버스에서 잘못 내린다. 그곳에서 우연히 과거 알고 지내던 여자(이명화)와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눈다. 모더레이터로 일하며 서울극장을 종종 찾던 여자는 남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몇 년 뒤 서울극장이 폐관할 즈음 관객과의 대화(GV) 행사를 위해 극장을 다시 찾은 여자는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화기가 된 남자와 다시 만난다. 재회한 두 사람은 서울 밤길을 걸으며 서로의 운명과 인연에 대해 생각하는데..

김태양 감독/이명화 배우가 실제 경험담을 모티브로 영화를 구상했으며, 작품의 첫 파트를 단편 '달팽이'란 제목으로 2020 부산영화제에서 선보인 뒤 장편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도쿄필름페스티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학생 심사위원상 및 심사위원 특별언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연인 하성국 배우는 '인트로덕션', '수유천' 등 홍상수 감독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이명화 배우는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영화 '시선 사이' 등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12세 이상 관람 가)

◇전장의 아수라장에서 꽃피는 인간애 같은 날 개봉하는 1983년작 '전장의 크리스마스'는 4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리마스터링된다. 기타노 다케시, 데이비드 보우 등 레전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작품으로, '감각의 제국', '열정의 제국' 등을 만든 일본 거장 오시마 나시가의 대표작이다.

특히 영화음악 대가인 류이치 사카모토는 이 작품에서 연기뿐 아니라 영화음악에 처음으로 도전해 대표곡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등을 탄생시켰다. 이 노래는 개봉 이듬해 영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석권했으며 2019년 피치포크 선정 '역대 최고의 영화음악'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 적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무사도' 정신을 맹종하는 일본군 대위 요노이가 포로수용소를 이끌고 있다. 요노이는 그곳에서 마주한 영국군 소령 잭 셀리어스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면서 또 갈등하는 내용.

그 과정에서 서로에서 총칼을 겨누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인식이 대두된다. 포화 속에서 영국, 일본군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인간성을 조망한 작품부터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스크린에 건다"고 했다.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스마트폰·키오스크’ 쉬운 사용법

문화재단 '디지털 역량강화' 강좌 12·14일 문화예술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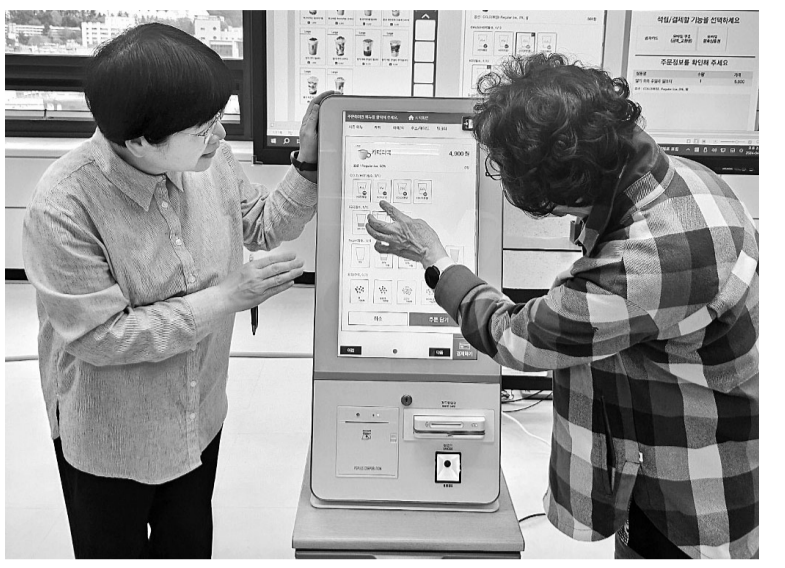
날로 새로운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 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등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로 일컫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디지털 정보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2층)에서 '디지털 역량강화' 강좌(12일, 14일 오전 10시)를 마련한 것. 동구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환 씨가 나서 정보화 시대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쉽게 강의할 계획이다.

첫날은 '스마트폰 활용'을 주제로 기본 조작 배우기, 키보드(문자 및 음성), QR코드 스캔하기, 카카오톡 활용법을 배운다. 두번째 날은 '키오스크 활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시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용'을 주제로 강좌용 키오스크 체험하기, 카페와 음식점 등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문화예술작은도서관 통해 선착순 15명 모집.

노희용 대표는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 위주로 강의할 계획이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토종 씨앗 살리고 소농 '어울림의 장'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도시농부장터-보자기장' 마지막 행사

"토종 씨앗을 심고 소농이 함께 어우러지는 '보자기장(場)'"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자인센터)가 2017년부터 총 20회 선보여 온 '도시농부장터-보자기장'이 지난 2일 삶디자인센터에서 막을 내렸다.

삶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만 640여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세 번의 행사에 총 2132명이 방문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플랫폼이 됐다 는 평가다.

보자기장을 도시농부 간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토종 씨앗을 살리는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 등에서 열린 친환경 행사다. 매년 학생 기후행동 동아리는 물론 요리팀, 디지털 셀러 등이 참가해 캠페인-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행사에는 브라질 타악기 그룹 '까미뉴 다 비다'를 비롯해 요리 동아리 '요리조리', 베이킹 동아리 '오븐 마스터즈', 종이 팩을 재활용하는 청소년 팀 '질라펠체', 청소년 기후행동 동아리 '일



'보자기장' 행사 장면.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제공)

점오도씨' 등이 자리했다. 행사를 기획한 삶디자인센터 정린 팀장은 "행사에 동참한 이들은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들이다"며 "참가자들이 개별로 장바구니를 지참하고, 대화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힘쓰는 행사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향교, 청년들과 소통 방안 마련해야”

광주향교 월례 교양강좌 ... 조순 대구가톨릭대 교수 제안

향교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층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광주향교에서 마련한 월례 교양강좌에서 조순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제안했다. 이번 강좌는 광주향교 제32대 장의단 구성 이후

마련된 세번째 강좌로 지역유림의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조순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유학과 향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순 교수는 "시속에 맞는 행사 진행, 젊은 층의 소통과 참여 유도, 지역봉사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향교가 대중과의 친밀감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의 호응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조 교수는 향교를 인성교육의 필수 코스로 지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교육청 및 교육단체와의 협약을 매개로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견해다.

한편 기후석 전교는 "지난 9월 추기석전에서 밝혔듯이 '향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대로 석전대제를 비롯한 향교의 모든 행사를 개방할 것"이라며 "향후 광주향교가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